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1905 THE YEAR

KBS교향악단 제787회 정기연주회

지휘 | 엘리야후 인발 Eliahu Inbal  
바이올린 | 닝 펑 Ning Feng

# 1905

PROGRAM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장조, 작품19**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Op.19**

🕒 22'

1악장 안단테보다 빠르게 (10')

Andantino

2악장 스케르초. 비바체보다 빠르게 (4')

Scherzo. Vivacissimo

3악장 보통 빠르기로. 조금 빠르게 (8')

Moderato. Allegro moderat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1번 g단조, 작품103 '1905년'**

🕒 55'

**D. Shostakovich | Symphony No.11 in g minor, Op.103 'The Year 1905'**

1악장 궁전 앞 광장 (14')

The Palace Square

2악장 1월 9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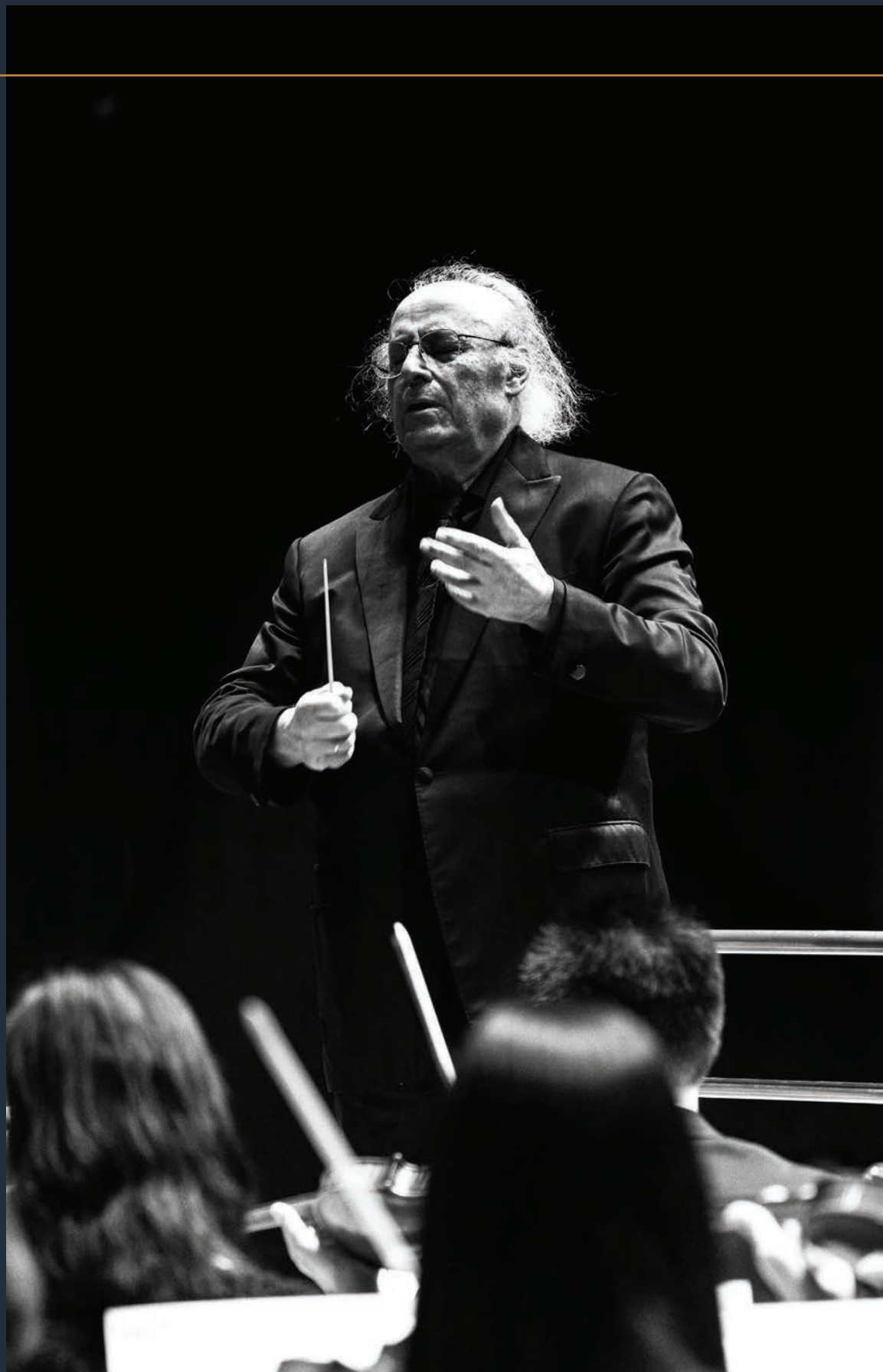
The 9th of January

3악장 추도 (10')

In Memoriam

4악장 경종 (14')

The Tocsin



## ELIAHU INBAL, CONDUCTOR

지휘 | 엘리아후 인발

**“평정을 유지하는 힘과 솜구치는 열정으로 극적인 효과를 내는 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다” - Die Welt**

엘리아후 인발은 26세의 나이로 귀도 칸텔리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전세계 청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베니스 페니체 극장, RAI 국립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체코 필하모닉의 수석지휘자로 활약했고, 2014년에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교향악단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타이베이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 재임했으며, 현재는 명예지휘자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명예지휘자로 있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재임 당시 (1974-1990)부터 탁월한 음악가적 재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베를리오즈,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라벨, 슈만, 쇼스타코비치,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제2빈악파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했으며, 특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에 대한 뛰어난 해석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고유의 해석이 빛나는 말러와 브루크너 음반은 다수의 음반상을 휩쓸며 널리 사랑받아왔다.

파리, 뮌헨, 슈투트가르트, 취리히, 마드리드 등지의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봉을 잡은 그는 2013년 바그너 사후 100주년을 맞이하여 라코루냐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플랑드르 오페라에서는 <파르지팔>을 성황리에 지휘했다. RAI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바그너의 <반지> 사이클은 이탈리아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Abbiati 상과 Viotti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태생의 인발은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했다. 이후 레너드 번스타인의 추천으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루이 푸레스티에, 올리비에 메시앙, 나디아 불랑제 등을 사사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수학할 당시에는 프랑코 페라라, 이탈리아에서는 첼리비다케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199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았고, 2001년 2월에는 비엔나 시에서 수여하는 황금 훈장을, 2006년에는 프랑크푸르트시 괴테 훈장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공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 NING FENG, VIOLINIST

바이올린 | 닝 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이 고스란히 담긴 자유분방한 대화의 환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라모폰>지**

닝 핑은 뛰어난 서정성, 타고난 음악성과 엄청난 기교를 갖춘 아티스트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요 국제 공연 시리즈와 음악제를 통해 리사이틀과 실내악 공연을 펼치며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들과 활발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20/2021 시즌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했으며, 압 판 츠베덴이 지휘하는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 아시아, 호주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 밖에도 뉴욕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등과 협연했다. 또한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키싱엔 여름 음악제를 비롯한 각종 국제 음악제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이번 시즌에는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국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채널 클래식스를 통해 다양한 협주곡과 실내악, 독주곡이 담긴 음반을 발매해왔다. 특히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국 앨범은 그라모폰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그 밖에도 드래곤 현악 사중주와 함께 슈베르트, 드보르자크, 보로딘,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들이 담긴 다수의 음반을 발매했다.

중국 청두에서 태어난 닝 핑은 쓰촨 음악원에서 후 웨이민을,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서 안티에 바이타스를 사사했으며,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런던 왕립음악원의 졸업 연주에서 최초로 만점을 받았다. 하노버 국제 콩쿠르, 쾨넨 엘리자베스 콩쿠르,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를 석권한 그는 2005년 뉴질랜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및 2006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홍콩 Premiere Performances의 지원으로 ‘Vieuxtemps Hauser’로 알려진 1710년산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영국 로열 노던 컬리지 음악대학의 바이올린 부서 국제 의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 PROGRAM

### NOTE

---

오늘 공연에서 연주되는 두 작품은 모두 러시아 혁명과 인연이 깊다.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성되었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11번 <1905년>은 러시아 혁명의 시발점이 된 '피의 일요일'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품에서 완성된 두 작품은 극단적으로 결이 다르다. 도저히 음악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한 시국에도 프로코피예프는 천상의 이상적인 고전과 서정성을 탐닉하는 반면, 1957년 작곡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은 모든 악장에 혁명가의 선율을 동원하며 인간의 역사를 가능한 가장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려낸다.

---

###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장조, 작품19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Op.19

작곡연도	1917년
초연	1923년 10월 18일, 프랑스 파리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튜바, 팀파니, 탬버린, 작은북,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22분

1917년은 서유럽과 러시아의 운명이 엇갈리는 해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안,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 이후 흔들리던 러시아 정세는 갈수록 부정부 상태에 빠져 혁명의 길로 내닫고 있었다. 대도시의 끔찍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파업과 반전 시위가 이어졌으며 시위대에 대한 군인들의 발포 거부는 쿠데타와 차르의 퇴위로 귀결됐다. 그리고 마침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 레닌이 인민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격동의 세상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 양, 이 시기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세계는 갈수록 번성했다. 1917년 한 해에만 '고전'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피아노 소나타 제3번과 제4번, 피아노를 위한 '찰나의 환영(Visions fugitives)', 칼데아 주문서를 가지고 작곡한 칸타타 <그들은 일곱(Seven, they are seven)>, 그리고 오늘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이 탄생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작곡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혁신적인 기교를 담은 다른 피아노 작품들과 정반대로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전통적인 형식미와 서정성을 담보로 완성됐다. 그러나 이 반전적 성격은 작품의 성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어수선한 조국을 떠나 서방세계로의 망명을 시도한 프로코피예프는 1923년 파리에 정착해 뒤늦게 이 곡을 초연했으나 파격적인 음악을 기대했던 아방가르드 옹호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초연 무대를 지켜보며 깊이 감명받은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시게티(Joseph Szigeti)에 의해 작품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

했다. 그는 1년 뒤 이 작품을 유럽과 미국에서 직접 연주하며 엄청난 반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레퍼토리로 등극시켰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만화경처럼形形色색의 다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성격이 있다면 바로 ‘서정성’이다. 프로코피예프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서정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신중하면서도 명상적인 분위기로 등장하며, 항상 선율을 품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아주 뒤늦게 발견한 성격으로, 사실 오랫동안 서정적 재능에 대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격려가 부족해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전통적인 3악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작품은 여느 협주곡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협주곡이 빠른 1,3악장 사이에 느린 2악장이 자리하는 반면, 이 협주곡은 2악장이 가장 역동적이고 현란하다. 자서전에서 언급된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서정성’은 1악장 도입부에서 바로 경험할 수 있다. 이 황홀하면서도 서정적인 도입부의 바이올린 독주에 작곡가는 ‘꿈꾸듯이 (sognando)’라는 지시어를 달아놓았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 자아내는 바이올린의 독주 선율 주변으로 부드러운 현악기 소리들이 따르며 약간의 대위법을 수줍은 듯 덧붙인다. 이어 첼로가 완고한 제2주제를 끌고 들어오면 바이올린 독주는 ‘낭독조로(narrante)’로 돌변해 엄청나게 수다스러워진다. 작곡가가 훗날 바이올리니스트 오이스트라흐에게 “누군가를 설득하듯 연주하라”고 조언한 부분이다. 1악장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플루트와 하프, 바이올린 독주가 제1주제를 아련하게 반복하며 천천히 사라진다.

‘비바체보다 빠르게(Vivacissimo)’로 설정된 2악장의 역동성과 기괴함은 다소 “야만적”이기까지 하다. 유머러스하면서도 독주자의 기교가 돋보이는 즐거운 순간은 4분여만에 끝이 나고, 이어지는 3악장은 오케스트라가 다시 무계를 가다듬는 시간이다. 느릿한 리듬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오케스트라와 그 위로 고공 비행을 하는 독주 바이올린이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 어디선가 익숙한 선율이 어렴풋이 들려온다면, 특히 3악장의 말미에서 1악장의 주제 선율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들은 것이 맞다. 이는 다른 아닌 1악장의 제1주제로, 작품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프로코피예프만의 ‘서정성’을 보여준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오늘 공연에 대한 지휘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마에스트로 엘리아후 인발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1번 g단조, 작품103 '1905년'

D. Shostakovich | Symphony No.11 in g minor, Op.103 'The Year 1905'

작곡연도	1957년
초연	1957년 10월 30일, 소련 모스크바
편성	플루트3(피콜로 겸함), 오보에3(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3(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실로폰, 작은북,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탐탐, 종, 첼레스타, 하프2, 현5부
연주시간	약 55분

1905년 1월 9일 일요일 아침, 수만 명의 러시아 민중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 앞으로 행진했다.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 체제에 고통받던 이들은 황제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었으며, 차르의 초상화를 든 채 '신이여! 차르를 보살피소서'를 노래하며 전진했다. 그러나 차르는 일찍이 군중들을 피해 도망가버렸고, 실권자였던 라푸스틴 신부의 발포 명령으로 4천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맞았다. 일명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이 학살을 계기로 러시아 민중들의 황제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무너졌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의 도가니 속으로 가파르게 빠져들었다.

쇼스타코비치는 '피의 일요일' 사건 이듬해에 태어났다. 학살의 생존자였던 아버지는 집에서 그 사건을 자주 입에 담았고, 그 잔인한 이야기는 작곡가의 어린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로부터 50년 뒤, 레닌 훈장을 받은 쇼스타코비치는 정권으로부터 당시 사건을 기념하는 작품을 위촉받으며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소환했다.

쇼스타코비치가 직접 표제를 붙인 최초의 교향곡인 이 작품은 각 악장 또한 '피의 일요일' 속 사건들을 부제로 지니고 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네 개의 악장은 휴지없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단일작품처럼 연주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은 모든 악장에 혁명가의 선율들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 1악장 '궁전 앞 광장'

제1악장은 하프의 화음을 배경으로 약음기를 착용한 현악기들의 우울한 연주로 시작된다. 학살이 일어나기 직전, 겨울 궁전의 스산한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그 뒤로 들려오는 팀파니와 군대의 나팔 소리는 '악(惡)의 동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이후에도 불길한 사건의 전령으로 등장한다. 악장의 중반에 들어서면 '들어주오!'라는 혁명가 테마가 팀파니의 셋잇단리듬에 맞춰 두 대의 플루트로 연주된다.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서정적인 선율이 긴장감을 안고 반복되고, 마지막에 혁명가 '밤은 어둡고'의 주제가 첼로와 더블베이스에 의해 연주된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2악장이 바로 시작된다.

## 2악장 '1월 9일'

무방비 상태의 군중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대 학살을 묘사하는 2악장은 교향곡 전체의 중심이 되는 악장이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민중가 '오 황제여! 우리들의 아버지여!' 테마가 연주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가 가라앉는다. 불길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관이 민중가 '모자를 벗자'의 테마를 연주한다. 이 테마는 교향곡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선율로, 이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재등장한다. 음악은 다시 '오 황제여!'의 선율로 돌아가며 두 번째 부분으로 접어든다. b플랫 단조로 바뀐 조성 속에 음악은 대위법을 쌓아가며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슬픔과 노여움, 저항의 감정이 섞여서 휘몰아치다 갑자기 적막이 흐르더니 1악장 '궁전 앞 광장'의 도입부가 연주된다. 이어서 총소리를 상징하는 작은북의 셋잇단음이 정적을 깬다. 더블베이스와 첼로에서 시작되는 격렬한 푸가토가 비올라, 바이올린으로 번지는 모습은 총격에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민중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오케스트라의 광포한 울림은 갑작스레 다시 정적으로 돌변하고, '궁전 앞 광장' 테마가 악음기를 부착한 현악기들의 전율하는 트레몰로를 통해 다시금 어렴풋이 들려온다. 팀파니의 기복 심한 억양을 뒤로한 채, 사건은 3악장 '추도'에 접어든다.

## 3악장 '추도'

부제 그대로 '피의 일요일'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송곡이다. 이 악장을 위해 작곡가는 1924년 레닌의 장례식에서 연주된 혁명가 '그대 희생자로 쓰러졌도다'를 테마로 사용했다. 악음기를 부착한 비올라가 이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는 '악의 동기'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 선율이 연주될 때는 모든 현악기들이 동원되어 테마를 자유롭게 펼친다. 중간에 현악기들이 밝은 정서로 노래하는 선율은 혁명가 <안녕, 자유여!>에서 따온 것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찬가로 분위기가 고양되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모자를 벗자' 선율이 복수의 다짐처럼 울려 퍼진다.

## 4악장 '경종'

마지막 악장은 격렬한 금관과 목관의 합주가 그야말로 '경종'처럼 울리며 시작된다. 비극을 딛고 일어난 민중들의 혁명가, '압제자들이여! 분노하라' 테마가 서두에 등장한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군하는 관악기들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자 폭발해버리고, 이어 호른과 트럼펫이 '모자를 벗자' 테마를 긴장 속에 연주한다. 후반부에 이르면 현악기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군가인 '바르샤반카(Warszawianka)'를 연주한다. 두서없이 자유롭게 전개되는 선율이 격양된 군중의 모습을 연상시키다가 어느덧 느린 코다에 이르면 분위기는 숙연하게 가라앉는다. 1905년 일어난 제1차 러시아 혁명의 실패를 되새기는 이 부분에서 잉글리시 호른이 '모자를 벗자' 테마를 연주한다. 타악기의 트레몰로가 정적을 깨고, 마지막에는 호른이 재차 '모자를 벗자' 테마를 연주하며 투쟁을 향한 의지를 불태운다.

글 | 노승림(음악 칼럼니스트)

## 제786회 정기연주회 <찬란한 빛 The Brilliant Light>

KBS교향악단은 2023시즌 첫 정기연주회의 레퍼토리를 말러와 그리그로 묶었고, 이를 '찬란한 빛'이라는 타이틀로 엮었다. 이날 연주는 노르웨이 출신의 국민악파 작곡가 그리그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보헤미안(말러)의 선율로 중첩되어 그려졌다.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그들을 대표하는 정기연주회의 전체적인 구성과 작품별 공합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우리 음악계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따져볼 좋은 기회였다. 중요한 건 이들이 시즌 첫 연주회부터 악단의 향상된 수준을 당당하게 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소 어수선하게 시작한 말러 교향곡 제5번, 음악감독 피에타리 잉키넨은 이 혼돈의 첫 파트(1악장, 2악장)를 재빠르게 정돈해야 했다. '운명의 동기'라 일컫는 트럼펫에 의한 3연음 리듬은 솔로 주자 뿐 아니라 악단 전체에 불안감을 선사한다. 트럼펫을 뒤따르는 오케스트라의 긴장 속에서 잉키넨은 1악장의 템포를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나갔다. 2악장은 그 무게를 직격탄으로 맞아 한참이나 조심스럽고 무겁게 끌고 나갔다.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3악장의 스케르초는 뜻밖의 협연자가 무대 앞으로 등장했다. 호르니스트 Samuel Jacobs는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세련되게 독일 민속 춤곡의 선율을 훌쩍이며 역량을 과시했다. 공연장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환기가 될 때가 있다. 바로 좋은 음악이 가져오는 바람이다. 이날 연주를 장식한 세 명의 협연자(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말러 교향곡 3악장의 호르니스트, 4악장의 하피스트)가 장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었다.

3악장에서 공기의 흐름을 바꾼 호르니스트의 활약 이후 무대의 연주자는 물론 객석의 관객도 음악에 집중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4악장 아다지에

토의 뮤즈인 하프는 최고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KBS교향악단의 현악 파트와 함께 명선율을 주고받았다. 하나의 작품이, 그중에서도 하나의 악장이 음악회 전체 티켓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현상을 이끌기도 하는데, 말러 교향곡 제5번의 4악장도 그 효과를 유발하는 악장 중 하나다.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를 즐기는 '취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선우예권이 협연한 그리그 협주곡의 2악장 아다지오 선율의 맛을 선명하게 기억해낼 것이다. 아다지오에 실린 느리지만 강렬한 호소는 이내 노르웨이 민속춤이 재료가 된 3악장의 넘치는 에너지로 이어졌다. 극도의 섬세함과 깊고 풍부한 힘을 모두 보유한 선우예권의 그리그는 관객에게 벅찬 희열을 선사했다.

금관 파트의 눈부신 성장세가 돋보인 교향곡 5악장은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않고 각 개인이 도달할 감정 수용 폭을 침범하지도 않는 수준 높은 연주였다. 특히 무대 위, 지휘자와 가장 먼 곳에서 악곡의 숨과 심표, 그리고 맛을 완성한 팀파니스트의 활약은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다소 대중적이었지만, 그 속에 깃든 특별함을 읽을 수 있는 연주였다.

글 | 김은중(음악 칼럼니스트)

### CONCERT INFORMATION

KBS교향악단 제786회 정기연주회  
1월 28일(토)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피아노 | 선우예권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a단조  
말러 | 교향곡 제5번 c#단조



#### KBS교향악단 신규단원 채용

---

국민의 오케스트라를 함께 이끌어 갈 주역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제1바이올린 : 악장(1)
- 제2바이올린 : 부수석(1)
- 더블베이스 : 단원(2)
- 호른 : 수석(1), 단원(1)
- 타악기 : 수석(1) - 팀파니 부수석 겸직

